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효율적 학습전략

실전처럼 문제풀고 틀린 것 체크

수능 D-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으로 D-100일 맞이 공부법을 살펴봤다.

◇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 돌입하라=오는 10일이면 수능 D-100일이다. 이 때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돌입해야 한다.

한번에 많이 풀기보다 과목마다 시간을 안배해 푸는 것이 좋다. 각 과목별로 매일 실제 수능 시험시간에 맞춰 한차례씩 꾸준히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다. 하지만 개인별 능력별에 따라 버거운 목표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과 시간에 맞게 요일별, 과목별, 횟수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단 어느 영역이든 한 회를 한번에, 반드시 실제 수능 시험시간에 맞춰 풀도록 연습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점수 확인에서 끝나면 안 된다.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문제도 반드시 표시하고 올바른 풀이법을 확인해야 한다.

◇ D-50일까지는 기본 학습을 완성하라=수능 D-50일까지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유형 학습을 마무리해야 한다. 즉 새롭게 도전하기보다 기존의 학습을 정리하는 방어적 학습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봄은 문제집, 교과서, 개념 정리집 등을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보면서 자신의 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능 100일 앞둔 현 시점에 서 탐구영역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방학은 탐구영역을 완



100여일 남은 수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 9월 전남여고 학생들이 수능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D-50일까지 과목별 개념정리 마무리

EBS 교재 최신 문제 꼼꼼히 풀어봐야

성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탐구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의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성적의 학생이라도 포기해선 안된다.

◇ 수능 직전까지 EBS 교재·기출문제로 정리하라=EBS 교재를 70% 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번 수능의 목표인 만큼 EBS의 주요 교재를 마무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BS 교재 중에서도 EBS파이널과 같이 출시가 늦은 교재가 실제 수능에서 더 비중 있게 반영될 가능

준에 맞게 2점, 3점 등의 쉬운 기출문제만을 모아 푸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를 풀다 보면 누구나 자주 틀리는 문제, 즉 약점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풀어보며 약점을 정복해야 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맞히긴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수능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져 무리하게 육심을 부리거나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시기별로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다져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디딤돌로 생각하고 지난 겨울방학부터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언어치료학부는 언어발달장애, 실어증, 말더듬, 음성장애, 조음장애 등 다양한 의사소통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해 역량 있는 언어치료전문인을 양성·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설립되어 내년 2월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언어치료학부 26명 언어장애전문가 자격시험 전원 합격

조선대 언어치료학부(학부장 신문자)는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가 주관한 2010년 하반기 언어장애전문가 자격검정시험에 4학년 26명이 응시해 100% 합격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 언어장애전문가 자격검정시험은 지난 2007년 신설된 언어치료학부

부 4학년 학생들이 첫 번째 치른 시험으로 이번에 시험을 치른 국내 대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전원 합격을 기록했다.

언어장애전문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2급 언어장애전문가 자격증을 받게 되며 병원 및 의료기관, 복지관, 사설 언어치료 기관,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언어치료 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신문자 언어치료학부장은 “교수들의 든든한 기초와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 합격 뿐 아니라 좋은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자 육성

광주교대 '초등생 40명 10개월 교육 프로그램' 오늘 개강

광주교육대(총장 박남기)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국제적 감각을 자닌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교대는 6일 오후 본관 대회 의실에서 '2010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지도자 육성 사업 제1기 사후 지원(follow up) 프로그램 및 제2기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개발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를 연결하는 미래 지도자 육성이 목표로, 이번에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리더십을 갖춘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 40명(다문화가정 30명, 국내 10명)을 선발해 ▲외국 초등

학교 방문 및 수업 교류 ▲현지 훌스데이 ▲다문화가정 학생 해당 국가 사회지도자와의 간담회 ▲해외 봉사 활동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우리 문화를 포함한 세계 문화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어머니나라에서 훌스데이를 통한 문화 이해·교류 등을 통해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1기로 2009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제 지도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활동 및 봉사활동, 워크숍, 멘토와의 자매결연 및 멘토링 중심의 추수지도(follow up)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대학교가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기인 2009년도에는 양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30명과 국내 학생 10명을 선발해 글로벌 리더십 60시간, 세계 시민 교육 30시간, 자아 정체성 교육 30시간, 국내 문화탐방 1일, 어머니 나라 방문 및 교류 6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교대 방기혁 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도 미래 글로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강신청·성적조회 핸드폰으로

동신대 호남지역 대학 첫 모바일웹 구축

스마트폰에 기반한 웹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신대가 호남 지역 대학 가운데 최초로 모바일 웹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면 누구나 컴퓨터 없이 핸드폰으로 수강신청·성적조회, 강의

시간표 확인, 학교버스 노선 확인, 취업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동신대가 모바일 웹을 구축한 것은 최근 6개월 이내 휴대폰 가입자 중 스마트폰 비율이 74%에 달하고, 향후 4년 이내에 대부분의 인터넷 장비가 모바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오는 모바일 웹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동신대는 앞으로 모바일 웹에서 활용 가능한 학사행정을 접속적으로 늘려나가고,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스포츠시설전문가 연수생 모집

전남대 日대학생 대상 국제여름학교

호남대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원장 조규정)이 지역스포츠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2기 스포츠시설전문가과정을 개설, 오는 10일까지 연수생을 모집한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호남대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은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2회 교육 일정으로 스포츠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호남대에 개설된 스포츠시설관리 전문가 과정은 스포츠시설 노후화와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의창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과 인재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총 90시간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이론교육과 함께 주말에는 현장 이론 및 실습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는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국제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본 고쿠시칸대학을 비롯해 고베대학, 세와다대학 등 8개 대학에서 일본인 학생 18명이 참가중이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오후에는 전남대 국제협력본부와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도지역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전남대 학교는 이 기간 동안 일본 대학생들의 눈높이를 겨냥해 자체 제작한 한국어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대 학생 18명이 한국인 대학생 자격으로 참가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본 대학생들과 1대1 친구관계를 맺고 국제여름학교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150,000원(VAT포함)

* 예약 및 상담 - 대표전화 : 062) 228-8000 / 예약실 : 062) 228-4711~2 | 주최 및 주관 |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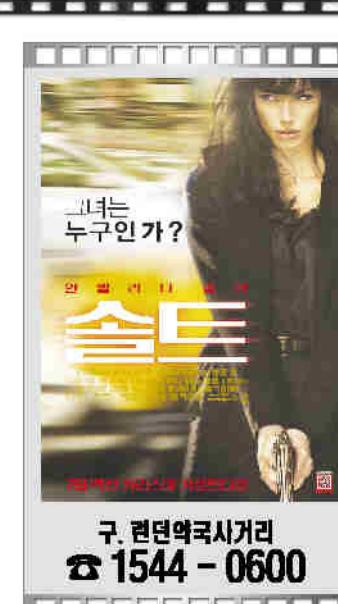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고사2교생 실습(154)	1관 슈렉 포에버(더빙)전체	
2관 오션스 아웃이어2/마법사의계자(전체)	2관 인셉션(124)	
3관 솔트(154)	3관 마법사의계자(전체)	
4관 솔트(154)	4관 이끼(104)	
5관 이끼(104)	5관 이끼(104)	
6관 명탐정코난(전체)/슈퍼포에버(더빙)(전체)	6관 도라에몽(더빙/전체)	
7관 인셉션(124)	7관 솔트(154)	
8관 명탐정코난(전체)/인셉션(124)	8관 솔트(154)	
9관 아저씨(104)	9관 명탐정코난(전체)	
10관 아저씨(104)	10관 마·음·이 2(전체)	

영화보단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은 차량 2시간 30분 초과시 1000원)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관	아저씨 (104)	최고급관
2관 솔트 (154) / 인셉션 (124)		
3관 인셉션 (124)		
4관 인셉션 (124)		
5관 스텝 업3D (124)		
6관 솔트 (154) / 토이스토리 (전체)		
7관 고사2교생 실습 (154)		
8관 이끼 (104)		
9관 아저씨 (10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은 차량 2시간 30분 초과시 1000원)



복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세계적인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CINUS
